

The Effects of Family Support Activities on Lif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노인의 가족지지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Yeon-woo Jeong¹, Yun-Jeong Kim²

정연우¹, 김윤정²

¹ Doctor, Department of Aging Welfare, Hanseo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skyyw1004@hanmail.net

²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nseo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twayun21@hanmail.net

Corresponding author: Yun-Jeong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family support activities on life satisfaction targeting the elderly in their 60 or up who are capable to use the Senior Welfare Center. In January-February 2022,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the elderly in their 60 or up. After excluding the questionnaires with many non-responses or filled up by the elderly who were not engaged in family support activities from the collected data, total 301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Using the SPSS Win 24.0 version, this study performed the reliability analysis,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level of family support activities in the elderly, the provision of support to spouse was the highest, which was followed by children and grandchildren in order.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family support activities according to age, education level, matter of having a spouse, health status, economic status, and family relationship of the elderly. Third, there were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education level, matter of having a spouse, health status, economic status, family relationship, and residence of the elderly. Fourth, when the family support activities of the elderly were higher, their life satisfaction was high. satisfaction.

Keywords: Family Support Activities, Life Satisfaction, the Elderly, Spouse Support, Child Support, Grand Children Child Support

요약: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관 이용 가능 나이인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의 가족지지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2022년 1월과 2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된 설문지 중 무응답이 많거나 가족지지 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0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Win 24.0 version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 빈도분석,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가족지지 활동의 수준을 보면, 배우자에 대한 지지 제공이 가장 높았고, 자녀, 그리고 손자녀 순이었다. 둘째, 노인의 연령,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경제 상태, 가족관계에 따라서 가족지지 활동에는 차이가 있었다. 셋째, 노인의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Received: January 24, 2023; 1st Review Result: March 11, 2023; 2nd Review Result: April 07, 2023
Accepted: April 30, 2023

건강 상태, 경제 상태, 가족관계, 거주지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는 차이가 있었다. 넷째, 노인의 가족지지 활동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감이 높았다.

핵심어: 가족지지 활동, 삶의 만족도, 노인, 배우자 지지, 자녀 지지, 손자녀 지지

1. 서론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전략을 내세웠다. 국가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중장기 목표를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균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제시하였고, 2040년까지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OECD 국가 기준 10위 이내로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3차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에서는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 국가’라는 비전을 내걸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대 전략을 내세웠다[1]. 그런데도 우리나라 노인 삶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조사[2]에서는 국민 삶의 만족도가 11점 만점에 평균 6.1 점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에서 5.9 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를 들어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적 변화, IT 변화, 대면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의 사람들 간의 소통방식의 변화,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변화 등 환경적 변화가 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년기의 삶의 기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향상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다는 노인 인구의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노인 세대는 1900년대 초반 출생자부터 최근 1955년 출생자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일제강점기, 광복, 한국전쟁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민주화, 그리고 최근 정보화까지의 역사적 사건과 변화를 겪은 세대이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사회와 경제 제도의 발전을 통해 공교육 확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국제화 등의 사회변화로 인해 현재의 65세 이상의 노인 집단 내에서도 나이별 교육 수준, 자녀 수와 가족관계, 직업, 부의 축적 정도, 가치관 등의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3]. 다양한 특성을 가진 노인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생산성에 초점을 두었다. 생산적 노화는 활동이론의 연장선상에서 노년기에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재평가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주장[4]하는 것이다. Bass 등[5]은 유급이든 무급이든,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 또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최근에는 생산적 활동의 범위가 확장되어, 유급 활동 이외에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가족과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 가사 활동, 시민참여 활동[6]과 같은 비경제적인 활동까지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노년기의 생산성은 단순히 경제활동이나 사회참여가 아니라 대다수 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인 가족에 대한 지지 활동[7]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한다.

노인에게 가족은 심리적, 경제적, 도구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차 집단이며, 동시에 비공식적 집단으로 노년기의 생활 만족, 안녕(well-being), 삶의 만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8][9]. 김순안[10]은 가족지지를 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서적 지지와 가족의 치료비 부담 정도를 말하는 도구적 지지로 구성하였다. 이미란[11]은 가족지지를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로 구분하였고, 정서적 지지는 가족의 일상적 조력, 물질적 도움, 경제적 도움, 간호 및 수발 등으로 측정하였다. 김명숙과 고종욱[12]은 가족지지를 제공자의 차원에서 구분하였는데, 배우자 지지와 자녀 지지로 구분하였다. 이중 배우자 지지는 배우자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믿고 의지하는 정도를, 자녀 지지는 자녀들과 관계가 좋으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8-12]를 참고하여 가족지지 활동을 배우자, 자녀, 손자녀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 서비스적 지지, 경제적 도움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한편, 노인의 삶의 질에 가족이 중요함에도[8][9], 노년기 가족지지 활동인 배우자 지지 활동, 자녀 지지 활동, 손자녀 지지 활동이 노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부족하다. 단지, 노년기 자녀와의 상호작용은 노인 삶의 만족도[13-15]와 심리적인 행복감[16]을 높이며, 성공적 노화에서 가족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주장한 연구[17]는 다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가족지지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첫째, 노인의 가족지지 활동과 삶의 만족도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가족지지 활동과 삶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노인의 가족지지 활동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노인복지관 이용가능 나이인 만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사회참여를 하는 충청남도 지역 노인이다. 2022년 1월 2일~2월 2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330부의 설문지가 수집되었으며, 이 중 사회참여를 전혀 하지 않거나 무응답이 많은 설문지 9부를 제외하였고, 독거노인이거나 가족이 없으므로 때문에 가족지지 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 20명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30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측정 도구

2.2.1 가족지지 활동

생산적 활동 중 가족지지 활동은 배우자, 자녀, 손자녀(친손주와 외손주 모두 포함) 각각에 대한 ‘말벗, 고민 상담 등 정서적 도움’, ‘청소, 식사 준비, 세탁 등 도구적 도움’, ‘간호, 수발, 병원 동행 등 신체적 도움’, ‘경제적 도움(정기적 현금 도움, 비정기적 현금 도움, 현물 지원의 3문항)’의 6개 문항, 5점 리커트형(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척도이다. 가족지지 활동은 총 18개 문항의 합산 평균 점수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에 대한 도움 제공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901이다.

2.2.2 종속변수 :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Diener, Emmons, Larson, Griffin[18]의 척도로써 5문항 5점 리커트형(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척도이다. 구체적으로 ‘나는 현재 나의 생활에 만족한다.’, ‘나는 다시 태어나고 지금과 같은 인생을 살겠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5개 문항의

합산 평균 점수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30이다.

2.2.3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노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나이, 학력,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경제 상태, 가족관계, 거주지의 8개 문항, 비연속적 변수(명목변수와 서열변수)로 측정했다. 분석을 위해서 나이는 3집단(1=60세~69세, 2=70세~79세, 3=80세 이상), 교육 수준도 3집단(1=무학/초졸, 2=중·고졸, 3=대졸 이상), 배우자 유무는 2집단(1=유 배우자, 2=무 배우자), 건강 상태/경제 상태/가족관계는 각각 3집단(1=나쁘다, 2=보통이다, 3=좋다), 거주지는 2집단(1=도시, 2=농어촌)으로 리코딩 하였다.

2.3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N	%	M(S.D.)
성별	남	107	35.5	-
	여	194	64.5	
연령	60대	118	39.2	73.86(9.675)
	70대	80	26.6	
	80대 이상	103	34.2	
교육 수준	무학·초졸	136	45.3	-
	중·고졸	104	34.7	
	대졸 이상	60	20.0	
배우자유무	유 배우자	151	51.5	-
	무 배우자	142	48.5	
건강 상태	나쁨	47	15.6	3.18(.805)*
	보통	154	51.2	
	좋음	100	33.2	
경제 상태	나쁨	76	25.2	2.99(.868)*
	보통	141	46.8	
	좋음	84	27.9	
가족관계	나쁨	41	13.7	3.46(.912)*
	보통	105	35.0	
	좋음	154	51.3	
거주지	도시	197	65.4	-
	농어촌	104	34.6	

% 는 무응답을 제외한 유효 퍼센트임

* : 5점 만점의 평균과 표준편차임

2.4 분석방법

SPSS Win 24.0 version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 빈도분석, 평균 차이 분석, 상관관계 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노인의 가족지지 활동과 삶의 만족도 일반적 수준

노인의 가족지지 활동의 실태를 빈도분석으로 살펴보았다[표 2-표 6]. 먼저 노인의 배우자 지지 활동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 151명의 결과이다[표 2]. 노인의 배우자에 대한 도움 활동은 5점 만점에 2.96 점에서 3.67 점까지의 분포를 보인다.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가 3.67 점으로 가장 높고, 현물 지원은 2.96 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전체 배우자 지지 활동의 평균은 3.31 점으로 중앙값인 3점 이상의 수준이었다.

[표 2] 노인의 배우자 지지 활동

[Table 2] Elderly's Support Activities for Their Spouse

		N	M	S.D.
정서적 지지 제공		149	3.67	.834
도구적 지지 제공		149	3.52	.997
신체적 수발 제공		149	3.38	1.068
경제적 지지 제공	정기적 현금지원	147	3.19	1.049
	비정기적 현금지원	144	3.03	1.047
	현물 지원(선물 등)	142	2.96	1.010
전체 배우자 지지 활동		149	3.31	.712

다음으로 노인의 자녀 지지 활동을 보면[표 3], 5점 만점에 2.44 점에서 3.31 점까지의 분포를 보인다.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지가 3.31점으로 가장 높고, 정기적 현금 지원은 2.44 점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 자녀 지지 활동의 평균은 2.82 점으로 중앙값인 3점 미만의 수준이었다.

[표 3] 노인의 자녀 지지 활동

[Table 3] Elderly's Support Activities for their Children

		N	M	S.D.
정서적 지지 제공		290	3.31	1.002
도구적 지지 제공		284	2.67	1.075
신체적 지지 제공		283	2.65	1.171
경제적 지지 제공	정기적 현금지원	276	2.44	1.141
	비정기적 현금지원	274	2.82	1.134
	현물 지원(선물 등)	273	2.89	1.098
전체 자녀지지 활동		290	2.82	.852

마지막으로 노인의 손자녀 지지 활동을 보면[표 4], 5점 만점에 2.10 점에서 2.85 점까지의 분포를 보인다. 손주에 대한 정서적 지지가 2.85점으로 가장 높고, 정기적 현금지원은 2.10 점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 자녀 지지 활동의 평균은 2.45 점으로 중앙값인 3점 미만의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3 점으로 다소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표로 제시하지 않음).

[표 4] 노인의 손자녀 지지 활동

[Table 4] Elderly's Support Activities for their Grand Children

		N	M	S.D.
정서적 지지 제공		251	2.85	1.080
도구적 지지 제공		247	2.25	.959
신체적 지지 제공		247	2.27	.993
경제적 지지 제공	정기적 현금지원	246	2.10	.949
	비정기적 현금지원	247	2.55	1.095
	현물 지원(선물 등)	248	2.60	1.097
전체 손자녀 지지 활동		253	2.45	.799

3.2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활동과 삶의 만족도의 차이

본 절에서는 노인의 배우자 지지 활동, 자녀 지지 활동, 손자녀 지지 활동을 합산 평균하여 가족지지 활동 변수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았고,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역시 변수 간 뚜렷한 차이가 없어서 합산 평균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활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노인의 나이,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경제 상태, 가족관계에 따른 가족지지 활동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연령에 따라서는 60대가 70대 및 80세 이상 노인보다 가족지지 활동을 더 많이 제공했고($F=11.142, p<.001$), 교육 수준에 따라서는 중·고졸 과 대졸 이상의 노인이 무학·초졸 노인보다 가족지지 활동이 더 높았다($F=14.616, p<.001$).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에 비해서 가족지지 활동이 더 많았고($t=6.098, p<.001$),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 좋음 ’으로 인식하는 노인이 ‘ 나쁨 ’으로 인식하는 노인에 비해 가족지지 활동을 더 많이 했다($F=3.492, p<.05$). 경제 상태에 따라서는 자신의 경제 상태를 ‘ 좋음 ’과 ‘ 보통 ’으로 인식하는 노인이 ‘ 나쁨 ’으로 인식하는 노인에 비해 가족지지 활동이 더 많았고($F=15.400, p<.001$), 마지막으로 가족관계에 따라서는 자신의 가족관계를 ‘ 좋음 ’으로 인식하는 노인의 가족지지 활동이 가장 높았고, ‘ 보통 ’, ‘ 나쁨 ’ 순이었다($F=34.893, p<.001$) 그러나 노인의 성별과 거주지에 따른 가족지지 활동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5].

[표 5]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활동의 차이

[Table 5] Differences in Family Support Activitie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N	M	S.D.	t/F값	Scheffe's
성별	남	107	2.75	.736	.142	-
	여	194	2.74	.711		
연령	60대	118	2.97	.755	11.142***	b
	70대	80	2.63	.563		a
	80대 이상	103	2.56	.716		a
교육 수준	무학·초졸	136	2.51	.673	14.616***	a
	중·고졸	104	2.90	.637		b
	대졸 이상	60	2.99	.803		b
배우자 유무	유배우자	151	2.98	.648	6.098***	-
	무배우자	142	2.50	.702		
건강 상태	나쁨	47	2.50	.750	3.492*	a
	보통	154	2.76	.669		ab
	좋음	100	2.83	.759		b
경제 상태	나쁨	76	2.38	.706	15.400***	a
	보통	141	2.80	.641		b
	좋음	84	2.97	.740		b
가족관계	나쁨	41	2.17	.785	34.893***	a
	보통	105	2.54	.585		b
	좋음	154	3.02	.649		c
거주지	도시	197	2.79	.753	1.746	-
	농어촌	104	2.65	.640		

*p<.05, ***p<.001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노인의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경제 상태, 가족관계, 거주지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교육 수준에 따라서는 대졸 이상인 노인이 중·고졸, 무학·초졸인 노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고(F=3.368, p<.05).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t=6.098, p<.001).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 좋음’이라고 인식하는 노인이 ‘보통’과 ‘나쁨’으로 인식하는 노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고(F=8.765, p<.001), 경제 상태에 따라서는 자신의 경제 상태를 ‘ 좋음’, ‘보통’, ‘나쁨’으로 인식하는 순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F=33.519, p<.001). 가족관계에 따라서는 자신의 가족관계를 ‘ 좋음’으로 인식하는 노인 삶의 만족도가 ‘보통’, ‘나쁨’으로 인식하는 노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F=35.068, p<.001), 거주지에 따라서는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 삶의 만족도에 비해 더 높았다(F=1.986, p<.05).

[표 6]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

[Table 6]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N	M	S.D.	t/F값	Scheffe's
성별	남	107	3.18	.661	-.792	-
	여	194	3.25	.738		
연령	60대	118	3.30	.696	1.301	N.S

		N	M	S.D.	t/F 값	Scheffe's
	70대	80	3.14	.590		
	80대 이상	103	3.21	.807		
교육 수준	무학·초졸	136	3.12	.726	3.368*	a
	중·고졸	104	3.28	.659		a
	대졸 이상	60	3.38	.742		b
배우자 유무	유배우자	151	3.31	.668	6.098***	-
	무배우자	142	3.16	.752		
건강 상태	나쁨	47	3.00	.801	8.765***	a
	보통	154	3.15	.678		a
	좋음	100	3.45	.663		b
경제 상태	나쁨	76	2.81	.747	33.519***	a
	보통	141	3.21	.600		b
	좋음	84	3.64	.618		c
가족관계	나쁨	41	2.90	.903	35.068***	a
	보통	105	2.91	.546		a
	좋음	154	3.52	.614		b
거주지	도시	197	3.29	.724	1.986*	-
	농어촌	104	3.12	.677		

*p<.05, ***p<.001

3.3 노인의 가족지지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가족지지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전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인의 가족지지 활동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r=.453, p<.001$)(표로 제시하지 않음).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유의하고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따라, 표 5와 표 6에서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나이,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경제 상태, 가족관계, 거주지 변수를 1단계에서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가족지지 활동을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표 7] 노인의 가족지지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7] Effects of Family Support Activities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B	β	t 값	B	β	t 값
1단계	(상수)	1.543		3.471**	.985		2.214*
	연령	.000	-.001	-.021	.002	.030	.460
	교육 수준(1=대졸이상)	.098	.055	.950	.102	.057	1.031
	배우자 유무(1=배우자있음)	-.056	-.039	-.571	-.128	-.090	-1.333
	건강 상태	-.012	-.013	-.233	.013	.015	.274
	경제 상태	.282	.341	5.757***	.241	.291	5.019***
	가족관계	.228	.293	5.116***	.156	.201	3.435***
2단계	거주지(1=도시)	.153	.103	2.008	.115	.077	1.550
	가족지지 활동				.271	.273	4.731***
				F 값 = 16.905*** R2 = .295	F 값=18.708*** R2= .347 R2 변화량 =.052		

p<.01, *p<.001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단계의 7개의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노인 삶의 만족도를 29.5% 설명하였고, 모델은 유의하였다($F=16.905$, $p<.001$). 개별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노인의 경제 상태($\beta=.341$, $p<.001$)와 가족관계($\beta=.293$, $p<.001$)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경제 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컸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 가족지지 활동 변수를 투입한 결과 8개 변수의 설명력은 34.7%로 8.47%가 향상되었으며, 모델도 유의하였다($F=18.708$, $p<.001$). 개별변수의 영향력을 보면 노인의 경제 상태가 좋을수록($\beta=.291$, $p<.001$), 가족관계가 좋을수록($\beta=.201$, $p<.001$), 가족지지 활동을 많이 제공할수록($\beta=.273$, $p<.001$)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관 이용 가능 나이인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의 가족지지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2022년 1월과 2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된 설문지 중 무응답이 많거나 가족지지 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0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Win 24.0 version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 빈도분석,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면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가족지지 활동의 수준을 보면, 배우자에 대한 지지 제공이 가장 높았고, 자녀, 그리고 손자녀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모든 대상에서 정서적 지지 제공이 가장 높았고, 반면 경제적 지원 제공 중 현물 지원이 가장 낮았다. 이는 노년기 배우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경제적 지원 중 현물지원이 가장 낮은 것은 노년기 경제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현재 노인인구의 빈곤율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38.9%가 중위소득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빈곤층으로[19], 현금이나 현물지원을 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노년기는 배우자나 가족, 손자녀에게 말벗, 고민 상담, 대화, 전화와 같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현물 제공 등의 경제적 지원은 어려운 시기임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노인의 나이,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경제 상태, 가족관계에 따라서 가족지지 활동에는 차이가 있었다. 즉, 60대의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속하는 경우, 대졸 이상의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 배우자가 있고, 건강 상태와 경제 상태가 보통 이상으로 좋고, 가족관계가 좋은 경우, 가족지지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인구 중 60대, 대졸 이상, 건강 상태와 경제 상태, 가족관계가 보통 이상으로 좋은 경우 가족지지 활동이 높은 것은 배우자나 자녀와 손자녀에게 정서적, 신체적, 도구적, 경제적 도움 등 다양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배우자가 있을 때는 없는 경우에 비해 다른 지지 활동에 비해 배우자 지지 활동이 추가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이 된다.

셋째, 노인의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경제 상태, 가족관계, 거주지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는 차이가 있었다. 즉, 대졸 이상의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 배우자가 있고, 건강 상태, 경제 상태 및 가족관계가 좋은 경우, 그리고 도시 지역에 사는 노인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으며, 노인들 스스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삶의 질이 높게 된다[20]. 또한 배우자를 상실한 노인이 혼자 살 때 심각한

절망과 좌절, 고독을 느끼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므로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하였는데[21], 그 이유는 부부가 함께 노년기를 보냄으로써 삶의 다른 주기에서 더욱 배우자와의 정서적 지지가 더욱 두드러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22].

넷째, 노인의 가족지지 활동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감이 높았다. 손자녀 양육은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거나 긴밀하게 하며 자신이 유용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노인들의 건강을 향상해 준다[23]는 점에서 노인의 가족지지 활동이 삶의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서 사회적 지지, 가족원의 지지의 긍정적 효과를 주장한 선행연구[24]와도 같은 맥락을 볼 수 있다. 물론 선행연구자들은 가족지지 활동을 노인이 가족원에게 제공하는 지지 활동이 아닌 가족원으로부터 받은 지지의 긍정적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나, 가족지지가 가족 구성원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돌보아 주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가치감을 갖게 해 주는 것[25]을 고려해보면 가족원에게 도움을 주는 가족지지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해석할 수 있다.

References

- [1] M. J. Choi, G. Y. Kim,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ASP-16,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22), Vol.42, No.2, pp.85-101.
Available from: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0478>
- [2] Statistics Korea, Quality of Life Indicators in Korea 2021, Jan 01 (2023)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sri/srikor/srikor_ntc/1/index.board?bmode=read&aSeq=417250&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
- [3] G. H. Han, H. K. Choi, J. S. An, J. H. Kim, Gerontology, Seoul: Sinjeong Publishing House, (2019)
- [4] N. Morrow-Howell, J. Hinterlong, M. Sherraden, Productive Aging: Concepts and Challenges,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1)
Available from: [https://books.google.co.kr/books?hl=ko&lr=&id=sayz5dbGTBcC&oi=fnd&pg=PR7&dq=Morrow-Howell,+N.,+Hinterlong,+J.,+Sherraden,+M.,+\(Eds.\),+Productive+Aging:+Concepts+and+Challenges.+++++++Baltimore,+MD:+Johns+Hopkins+University+Press&ots=4vxUg-KWVT&sig=LZYUwITShH8wYd4oi6dyXkD-r34#v=onepage&q&f=false](https://books.google.co.kr/books?hl=ko&lr=&id=sayz5dbGTBcC&oi=fnd&pg=PR7&dq=Morrow-Howell,+N.,+Hinterlong,+J.,+Sherraden,+M.,+(Eds.),+Productive+Aging:+Concepts+and+Challenges.+++++++Baltimore,+MD:+Johns+Hopkins+University+Press&ots=4vxUg-KWVT&sig=LZYUwITShH8wYd4oi6dyXkD-r34#v=onepage&q&f=false)
- [5] S. A. Bass, F. G. Caro, Y. Chen, Achieving a Productive Aging Society, Westport, CT: Auburn House, (1993)
- [6] J. A. Burr, F. G. Caro, J. Moorhead, Productive Aging and Civic Participation, Journal of Aging Studies, (2002), Vol.16, No.1, pp.87-105.
DOI: [https://doi.org/10.1016/S0890-4065\(01\)00036-6](https://doi.org/10.1016/S0890-4065(01)00036-6)
- [7] S. H. Woo,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Family Strength and Parenting Efficacy of Young Children's Mothers, The Journal of Welfare and Counselling Education, (2017), Vol.6, No.1, pp.195-214.
DOI: <https://doi.org/10.20497/jwce.2017.6.1.195>
- [8] W. H. Kim, A Study on the Related Variable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people : Focused on Personality Traits, Family Support, Psychological well-being, Dongbang Culture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9)
- [9] N. Krause, E. Borawski-Clark, Social Class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among Older Adults, The Gerontologist, (1995), Vol.35, No.4, pp.498-508.
DOI: <https://doi.org/10.1093/geront/35.4.498>
- [10] S. A. Kim, Impact of Family Support and Social Support on Hopelessness among Rural Elderly People,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2012), Vol.19, No.3, pp.581-616.
DOI: <https://doi.org/10.12653/jecd.2012.19.3.581>

- [11] M. R. Lee, A study on the Health and Ego-integrity of the Elderly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Silla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1)
- [12] M. S. Kim, J. W. Ko, The Effect of the Elderly's Leisure Activity on Their Health and the Mediating Role of Family Support,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2013), Vol.60, pp.35-54.
DOI: <https://doi.org/10.21194/kjgsw..60.201306.35>
- [13] Q. L. Lin, H. K. Kim, J. S. Ann,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n Elderly Women Living Alone: The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Activit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11), Vol.31, No.1, pp.33-47.
Available from: <https://www.tkgs.or.kr/html/?pmode=search>
- [14] A. I. Berg, L. B. Hassing, G. E. McClearn, B. Johansson, What Matters for Life Satisfaction in the Oldest-old?, *Aging and Mental Health*, (2006), Vol.10, No.3, pp.257-264.
DOI: <https://doi.org/10.1080/13607860500409435>
- [15] N. Krause, E. Borawski-Clark, Social Class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among Older Adults, *The Gerontologist*, (1995), Vol.35, No.4, pp.498-508.
DOI: <https://doi.org/10.1093/geront/35.4.498>
- [16] Y. H. Won, Living Arrangement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995), Vol.15, No.2, pp.97-116.
Available from: <https://www.tkgs.or.kr/html/?pmode=search>
- [17] J. S. An, Y. J. Jeong, Y. S. Chong, S. G. Seo, T. M. Cooney, Critical Aspirations from Studies of Successful Aging,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11), Vol.24, No.3, pp.35-54.
UCI : G704-000281.2011.24.3.001
- [18] E. D. Diener, R. A. Emmons, R. J. Larsen, S. Griffin,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985), Vol.49, No.1, pp.71-75.
DOI: https://doi.org/10.1207/s15327752jpa4901_13
- [19] Statistics Korea, Promotion of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Pension Statistics to Relieve Elderly Poverty and Ensure Stable Life in Old Age, (2023)
- [20] K. T. Kim, B. G. Park, Life Satisfaction Social Support Network of the Elderly living Alon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00), Vol.20, No.1, pp.153-168.
Available from: <http://www.tkgs.or.kr>
- [21] I. Stuart-Hamilton, (Ed.), *An introduction to geront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 [22] V. R. Kivett, R. M. Learner, R. M., Situational Influences on the Morale of Older Rural Adults in Child-Shared Housing: A Comparative Analysis, *The Gerontologist*, (1982), Vol.22, No.1, pp.100-106.
DOI: <https://doi.org/10.1093/geront/22.1.100>
- [23] M. H. Kim, J. J. Kyung, An Empirical Study of Elderly Volunteering Commitment and Their Life Satisfaction Based on Activity Theor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2003), Vol.54, pp.221-244.
Available from: http://www.twin.or.kr/bbs/upload/input/Board_bbs7_1403_1.pdf
- [24] A. R. Park, K. S. Jeong, Influence of Subjective Health Status, Social Activity and Family Support 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of Elderly in a Communit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7), Vol.17, No.3, pp.212-221.
DOI: <https://doi.org/10.5392/JKCA.2017.17.03.212>
- [25] S. H. Sok, A Comparative Study on Physical Health Status, Family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between the Aged Living Alone and Living with Fami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08), Vol.19, No.4, pp.564-574.
UCI: G704-001647.2008.19.4.003